

농촌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참여, 심리적 자본, 삶의 질의 구조관계 분석*

김경희^{a**} · 박예나^b

^a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수사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b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문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A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eisure Activity, Psychologic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Healing Tourists

Kyung-Hee Kim^a · Yae-Na Park^b

^a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bPost Doc.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eisure activity, psychologic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healing tourists. Data were collected from 407 workers who had experience in rural healing tourism through an online survey. SPSS 28.0 and AMOS 28.0 were used for frequency, confirmatory factor,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alysi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dicate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eisure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workers' psychological capital. Through rural healing tourism, various outdoor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and social interaction with people using rural resources can help improve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workers.

Key words: rural tourism, healing tourism, leisure activity, psychological capital, quality of life

1. 서론

현대 사회의 경쟁 심화와 일·여가의 불균형 속에서 스트레스 등 직장인의 정신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여가활동은 많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스트레스 상황일 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Janke, Nimrod, & Kleiber, 2008).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 농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을 찾는 관광객의 32.2%가 일상탈출과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21, 농촌진흥청). 농촌 치유관광은 일상을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를 가진 활동을 통해 스트

레스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을 말한다(농촌진흥청, 2020).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류·휴식·운동형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 직장인의 심과 일상회복을 위해 긍정적인 여가활동이 될 수 있다.

여가활동은 건강과 긍정적인 인과관계, 스트레스 완화와 자아실현 욕구 충족은 물론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김유식, 이슬잎, & 김아름, 2012; Kim, & Kim, 2014). 여기에 만족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건설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사혜지, 이철원, & 김민정, 2018). Taygi, Tandon, & Mittal (2023)은 여행경험(무용동작치료)이 참여자의 마음챙김과 심

주요어: 농촌관광, 치유관광, 여가활동, 심리적 자본, 삶의 질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609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김경희) 전화: 063-238-2630, e-mail: khkim08@korea.kr

리적 자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으며, 대학생의 여가활동 만족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인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슬기, & 조인환, 2018).

심리적 자본은 긍정적인 인적자원의 강점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며, 직장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측정,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Luthans, 2002). 심리적 자본은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의 네 가지 하위개념의 심리적 자원이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심리적 자본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설명력이 높고 효과적이다(Luthans et al., 2005).

삶의 질은 사람들이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그의 삶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Dalkey, & Rourke, 1973). 개인의 가치, 열망 및 기대를 고려한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한 만족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Tay, & Diener, 2011). 그동안 종교관광 경험(백규리, & 이계희, 2021), 신체 및 정신건강(방소연, & 도영숙, 2020)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가활동 만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의 긍정적인 매개역할(박슬기, & 조인환, 2018), 여가활동 참여의 진지성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고동우, & 김병국, 2016), 여가활동 참여가 심리적 자본과 동료 지지에 미치는 영향(Tu, 2020)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직장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치유관광, 농촌 치유관광과 관련한 연구에서 아직 심리적 자본과 연결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직장인의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농촌 직장인의 여가활동의 범주에서 농촌 치유관광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지향성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활동 참여가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치유 연구에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여가활동으로서 농촌 치유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촌 치유관광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로 인한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김경희, & 안지현, 2020)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으로 농촌 치유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치유관광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추세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관광 분야의 하나로, 심리적 안녕과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형태이다(김경희, & 안지현, 2020; 김경희, & 이혜영, 2019; 김경희, & 황대용, 2019a,b). 농촌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독특한 경험을 통해 도시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치유적인 공간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김경희, & 안지현, 2020; 민재한, & 김경희, 2021). 김경희, 박예나, & 민재한(2023)에 따르면, 농촌 치유관광에서 농촌성에 대한 인식이 치유관광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성이 치유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 치유관광은 주로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며, 오랜기간 동안 노출되는 회복 환경에서의 체류는 집중력 회복에 기여한다(김경희, & 안지현, 2020; 김경희, & 황대용, 2019b; 한주형, 이원석, & 문준호, 202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촌 치유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경희, & 황대용, 2019b).

또한,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역사 등의 치유적 자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자연환경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경희 et al., 2023). 이를 통해 도시 생활의 속박된 환경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 환경에서의 휴식과 재충전은 내면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안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여가활동의 범주 안에서 농촌 치유관광과 연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홍민정(2021)은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치유관광 체험을 여가심리학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윤혜진, 최승묵, 정란수, & 박경열(2022)은 해양치유로서 수중레저 활동의 여가제약과 만족도 및 추천의사를 분석하였다. 이종열, & 이형룡(2018)은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윤선희, 신창섭, 홍중숙, & 정영미(2022)는 치유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 여가활동 만족을 중심으로 도시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이 정서적 삶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하경희(2018)은 웰니스와 여가를 연계하여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웰니스여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2.2. 여가활동 참여와 심리적 자본, 삶의 질의 관계

여가활동 참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 연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Elbaz, Salem, Elsetouhi, & Abdelhamied, 2020; Snir, & Harpaz, 2002). 이는 즐겁고 편안한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일과 삶의 갈등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한다(Elbaz et al., 2020).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직원들은 대인 관계 형성, 스트레스 해소, 삶의 만족도 향상, 역경 극복 능력 향상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Cho, 2020; Elbaz et al., 2020; Janke, Nimrod, & Kleiber, 2008; Shores, & Scott, 2007; Walker, Halpenny, & Deng, 2011; 이혜미, 이충기, 이채은, & 이진경, 2012). 이와 더불어 여가활동은 직원들의 욕구 충족과 직장 내 성취 및 혁신을 촉진하며(Elbaz et al., 2020; Shores, & Scott, 2007), 심리적 웰빙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Janke et al., 2008; Newman, Tay, & Diener, 2014).

심리적 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며,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진 2차요인이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Ferradás, Freire, García-Bértoa, Núñez, & Rodríguez, 2019). 자기효능감은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낙관주의는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희망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경로를 조정하는 것, 회복탄력성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의미한다(Luthans et al., 2007, p. 3). 여가활동 참여는 문제에 대처하고 자아실현과 회복력을 강화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는 이러한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와 심리적 자본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고동우, 김병국(2016)은 여가활동 참여의 진지성이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Tu(2020)는 여가활동 참여가 아동들의 심리적 자본과 동료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Xu, & Choi(2023)의 연구에서 문화 예술 활동 참여가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 참여와 심리적 자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와 심리적 자본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여가활동 참여는 심리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여가활동 참여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 관계

심리적 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이는 개인의 웰빙과 직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antisi, Lodi, Magnano, Zarbo, & Zammitti, 2020). 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개인의 웰빙과 직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와 자아 발전을 촉진시킨다. Soares Marques, Lopes, & Gonçalves,(2021)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이 업무 품질, 생산성 성과 및 직무 만족을 예측하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Avey, Avolio, & Luthans(2011)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이 직무 만족, 심리적 웰빙, 협력적 행동, 긍정적인 업무 결과와 긍정적으로 연관됨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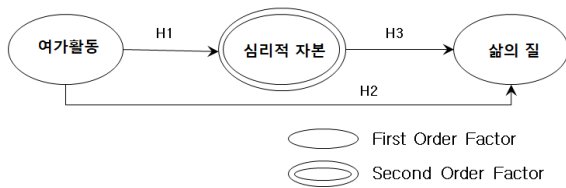
한편, 삶의 질은 물질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웰빙의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와 개인 가치 체계에 영향을 받는 의미 있는 사건 수준 및 개인 성장을 포함한다(Karimi, & Brazier, 2016). 심리적 자본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촉진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이 일상적인 도전과 어려움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개인의 웰빙과 직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Okun, 2022). 김영경, 권수혜, & 손혜정(2018)은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심리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연구의 목적은 여가활동 참여가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고동우, 김병국, 2016; Santisi et al., 2020; Xu, & Choi, 2023)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Lin et al.(2014)를 바탕으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자본은 선행연구(Avey, Luthans, Smith, & Palmer, 2010; Pathak, and Joshi, 2021; Tsaor, Hsu, & Lin, 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희망 4항목, 회복탄력성 4항목, 자기효능감 4항목, 낙관주의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질은 선행연구(Luo, Lanlung, Kim, Tang, & Song, 2018)를 바탕으로 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Likert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기업에서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2021년 8월에 조사하였다. 전국 거주 15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성, 지역, 연령을 고려한 제곱근비례배분 방법을 이용해 표본 할당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중 최근 5년 이내에 농촌 치유관광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직장인 4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여가활동 참여 참여가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SPSS 28.0과 AMOS 28.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28.0을 사용하여 Higher-Order Construct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First-Order모형과 같이 하위변수들을 각각 분석하지 않고, Second-Order Construct모형으로 심리적 자본은 2차 요인으로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로 구성된 4개의 저차요인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배병렬, 2014). 연구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MOS 2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첫째, 각 항목의 요인부하값은 .7이상인지 확인하고, 둘째, 신뢰도가 .7 이상인지 확인한다. 셋째,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5 이상이어야 한다.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공값과 AVE 값을 비교하여 AVE 값이 잠재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공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평가한다(Fornell, & Larcker, 1981).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한 후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여 연구모형의 가설들을 검증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55.8%)이 여성(44.2%)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분포는 60대 이상(23.1%)이 가장 많았고, 30대(20.9%), 40대(20.8%), 50대(19.2%), 20대(16.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대학교 재학/졸업(59.5%)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재학/졸업(17.7), 전문대학 재학/졸업(12.0%) 고등학교 졸업이하(10.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63.1%)이 미혼(31.9%) 보다 많았다. 직업은 사무 종사자(40.3%)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600만원 이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407)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227(55.8)	직업	관리자	48(11.8)
	여성	180(4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9(19.4)
연령	20~29세	65(16.0)		사무 종사자	164(40.3)
	30~39세	85(20.9)		서비스 종사자	48(11.8)
	40~49세	85(20.8)		판매 종사자	14(3.4)
	50~59세	78(19.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2.2)
	60대 이상	94(2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2.5)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44(1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2.9)
	전문대 재학/졸업	49(12.0)		단순노무 종사자	23(5.7)
	대학교 재학/졸업	242(59.5)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대학원 재학/졸업	72(17.7)	200~400 만원미만		122(30.0)
결혼 여부	미혼	130(31.9)	400~600만원미만		111(27.3)
	기혼	257(63.1)	600만원 이상		142(34.9)
	기타	20(4.9)			

상(34.9%)이 가장 많았으며, 200~400만원 미만(30.0%), 400~600만원 미만(27.3%), 200만원 미만(7.9%) 순으로 나타났다.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가 .846, .842, .901, .765로 유의확률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심리적 자본 2차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측정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심리적 자본에 관한 2차 요인분석(2nd Order Analysis)을 먼저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요인구조와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개념이 여가활동 참여, 삶의 질은 단일차원으로 측정하였고, 심리적 자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로 구성된 후 연구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이를 2차 요인(2nd-Order)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2단계로 실시되었다. 첫째, 하위요인인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신뢰성 및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고, 둘째, 하위요인인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의 측정항목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측정항목으로 하는 심리적 자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요인분석 결과 χ^2 (CMIN)=215.444, $df=86$, $p=.000$, $CMIN/df=2.505$, $NFI=.937$, $NNFI=.952$, $CFI=.961$, $RMSEA=.061$ 로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계수는 .630~.837로 기준치($\geq .5$)를 상회하였다(이창기, 2019). 1차 요인인 희망,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주의가 2차 요인인 심리적 자본의 요인으로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1차 요인의 항목의 평균값을

4.3. 구성 개념별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CMIN)=499.271, $df=223$, $p=.000$, $CMIN/df=2.239$, $NFI=.899$, $NNFI=.933$, $CFI=.941$, $RMSEA=.055$ 으로 전반적으로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창기, 2017). 연구모형과 이론적 모델이 일치하기 위해서 p 값이 유의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결과가 자유도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CMIN/df$ 의 값을 이용하여 적합도를 판단한다(이창기, 2019). 여기에서는 p 값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CMIN/df$ 값이 2.239로 3보다 작아 전반적으로 적합한 측정모델로 판단된다. 표준화계수는 .627~.847로 기준치($\geq .5$)를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은 .468~.945로 여가활동 참여의 AVE 값이 .468로 기준치 보다 약간 낮았으나, 그 외에는 기준치($\geq .5$)를 상회하여 집중타당성은 확보되었다.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815~.986으로 기준치($\geq .7$)를 상회하여 구성개념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이창기, 2019).

또한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가장 엄격한 방법인 AVE(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여가활동 참여, 심리적 자본,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AVE가 상관관계의 제곱값 보다

〈표 2〉 심리적 자본의 2차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항목		표준화 계수
	잠재변수	관측변수	
심리적 자본	희망 (표준화계수: .846)	나는 일에서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683
		나는 현재 나 자신의 일에서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694
		나는 내가 설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746
		나는 내 일의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769
	회복탄력성 (표준화계수: .842)	나는 직장에서 어떤식으로든 위기를 관리한다.	.722
		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	.649
		나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	.717
		나는 한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630
	자기효능감 (표준화계수: .901)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764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830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764
		일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꽤 잘할 수 있다.	.808
	낙관주의 (표준화계수: .765)	나는 일과 관련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767
		나는 항상 내 일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일들을 보려고 한다.	.837
		직장에서 불확실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조직을 위해 가장 긍정적인 것을 기대한다.	.700

$\chi^2(\text{CMIN})=215,444$, $df=86$, $p=.000$, $\text{CMIN}/df=2,505$, $\text{NFI}=.937$, $\text{NNFI}=.952$, $\text{CFI}=.961$, $\text{RMSEA}=.061$

〈표 3〉 구성 개념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	항목	표준화 계수	
여가활동 참여	나는 야외활동을 많이 한다.	.673	
	나는 문화활동을 많이 한다.	.714	
	나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한다.	.664	
	나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한다.	.650	
	나는 취미활동을 많이 한다.	.666	
심리적 자본	희망	나는 일에서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681
		나는 현재 나 자신의 일에서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701
		나는 내가 설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746
		나는 내 일의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766
	회복탄력성	나는 직장에서 어떤식으로든 위기를 관리한다.	.721
		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	.653
		나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	.719
		나는 한번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627
	자기효능감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765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833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765
		일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꽤 잘할 수 있다.	.805
낙관주의	나는 일과 관련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768	
	나는 항상 내 일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일들을 보려고 한다.	.836	
	직장에서 불확실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조직을 위해 가장 긍정적인 것을 기대한다.	.699	
삶의 질	나는 대체로 나의 삶이 행복한다.	.821	
	기쁨이 있지만, 대체로 나는 나의 삶을 좋게 느낀다.	.847	
	나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영위한다.	.782	

$\chi^2(\text{CMIN})=499,271$, $df=223$, $p=.000$, $\text{CMIN}/df=2,239$, $\text{NFI}=.899$, $\text{NNFI}=.933$, $\text{CFI}=.941$, $\text{RMSEA}=.055$

〈표 4〉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구성개념	여가활동 참여	심리적 자본	삶의 질
여가활동 참여	1		
심리적 자본	.258 (.067)	1	
삶의 질	.351 (.123)	.581* (.338)	1
CR	.815	.986	.891
AVE	.468	.945	.731

주: 괄호 안은 상관관계 제곱값. *가장 높은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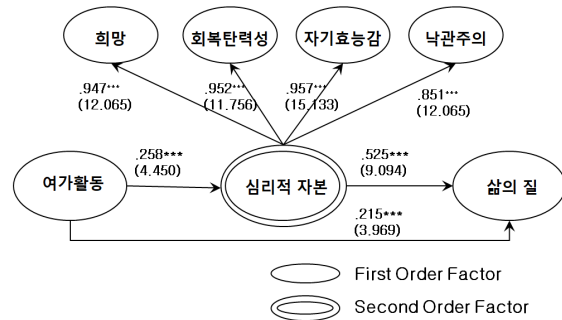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이충기, 2019).

4.4.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 검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결과 적합도는 $\chi^2(\text{CMIN})=499.271$, $df=223$, $p<.001$, $\text{CMIN}/df=2.239$, $\text{NFI}=.899$, $\text{NNFI}=.933$, $\text{CFI}=.941$, $\text{GFI}=.905$, $\text{AGFI}=.883$, $\text{RMSEA}=.055$ 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충기, 2019). 연구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 참여는 심리적 자본에 정(+)의 영향($\beta=.258$, $t=4.4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215$, $t=3.969$,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심리적 자본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525$, $t=9.094$,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삶의 질 간의 경로에서 여가활동과 삶의 질 간의 경로를 0으로 제약하는 조건과 제약하지 않고 추정하는 조건에서 두 모델간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만일 모든 경로가 유의하고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χ^2 값의 차이가 유의하다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가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 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나 비제약 모델($\chi^2(\text{CMIN})=499.271$, $df=223$, $p<.001$)과 제약모델($\chi^2(\text{CMIN})=565.258$, $df=224$, $p<.001$) 간의 χ^2 값의 차이가 $df(1)=65.987$ 로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4).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배병렬, 2014; 우종필, 2012).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beta=.136$, $p<.01$) 나타났으며,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LLCI=



주: * $p<.05$, ** $p<.01$, *** $p<.001$, 표준화계수(t-값)
 $\chi^2(\text{CMIN})=499.271$, $df=223$, $p<.001$, $\text{CMIN}/df=2.239$, $\text{NFI}=.899$,
 $\text{NNFI}=.933$, $\text{CFI}=.941$, $\text{GFI}=.905$, $\text{AGFI}=.883$, $\text{RMSEA}=.055$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표 5〉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여가활동	삶의 질	심리적 자본	.321*	.136**	.468*

주: * $p<.05$, ** $p<.01$

〈표 6〉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간접효과	신뢰구간		p
		LLCI	ULCI	
여가활동 → 심리적 자본 → 삶의 질	.136**	.082	.199	$p<.01$

주: ** $p<.01$, LLCI=Lower-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Level Confidence Interval.

.082, ULCI=.199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Alola, Olugbade, Avci, & Ozturen, 2019). 따라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자본은 여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가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삶의 질의 개념을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자본은 2차 요인으로 구성개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가활동은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동우와 김병국(2016)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참여의 진지성이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박슬기, & 조인환, 2018; Tu,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직장인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Xu, & Choi, 2023)와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Avey et al., 2011; Okun, 2022; Soares Marques et al., 2021)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직장인의 여가활동으로서 농촌 치유관광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촌 치유관광 연구는 치유관광객의 인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김경희, & 안지현, 2020; 김경희, & 황대용, 2019b), 농촌 치유관광객의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 환경에서 주로 적용되어 온 심리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으로서 농촌 치유관광이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연구에서 심리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장인을 대상으로 농촌 치유관광이 쉽고 재충전을 위한 좋은 여가활동이 될 수 있음을 마케팅에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장인의 치유적 니즈와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여가와 치유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들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직장인들의 요구와 원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연차 휴가와 같은 자유로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 치유프로그램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워크샵, 명상과 요가, 농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소풍 및 개인 시간 활용 등을 포함하며, 직장인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촌 치유관광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마케팅 전략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촌 치유관광을 통해 직장인의 심리적 자본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촌 치유관광을 통한 행복감 향상,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등 삶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직장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치유관광이 단순히 심신의 재충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시 잘 활용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직장인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촌 치유관광 등 일상을 벗어난 여가활동을 통해 직장인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한 개인과 직장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 치유관광 적용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농촌 치유관광과 관련된 여가활동의 범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심리적 자본, 심리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제시하였다. 여가활동 참여와 삶의 질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도 분석한다면 보다 폭 넓은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 치유관광의 범주에서 여가활동을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하고 보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고동우, & 김병국. (2016). 진지성 여가경험과 긍정심리 자본 및 삶의 질의 관계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7(1), 179-198. doi:10.21074/kjcap.2016.17.1.179
2. 김경희, 박예나, & 민재한. (2023). 농촌성 인식, 치유관광 태도,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30(1), 31-41. doi:10.12653/jecd.2023.30.1.0031
3. 김경희, & 안지현. (2020). 농촌 치유관광의 회복경험이

- 관광민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방문경험의 조절 효과. *관광레저연구*, 32(4), 5-25. doi:10.31336/JTLR.2020.4.32.4.5
4. 김경희, & 황대용. (2019a). 농촌 치유관광의 당면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26(2), 69-84. doi:10.12653/jeccd.2019.26.2.0069
 5. 김경희, & 황대용. (2019b). 농촌 치유관광에서의 회복 경험. *농촌지도와 개발* 26(3), 113-126.
 6. 김영경, 권수혜, & 손혜경. (2018). 간호대학생의 지각한 스트레스, 우울, 긍정심리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3), 1579-1593.
 7. 김유식, 이솔인, & 김아름. (2012). 인문·사회과학편: 직장인들의 여가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6), 401-410.
 8. 농촌진흥청. (2020). *농촌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치유관광 모델*. 전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9. 농촌진흥청. (2021).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전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0. 민재한, & 김경희. (2021).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 속성 만족이 주의회복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적 서비스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33(8), 43-67. doi:10.31336/JTLR.2021.8.33.8.43
 11. 박슬기, & 조인환. (2018). 대학생의 여가활동만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2(12), 165-177. doi:10.21298/IJTHR.2018.12.32.12.165
 12. 방소연, & 도영숙. (2020). 중년 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6), 161-169.
 13. 배병렬. (2014).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14. 백규리, & 이계희. (2021). 종교관광 경험이 여행자의 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23-38. doi:10.21298/IJTHR.2021.6.35.6.23
 15. 사혜지, 이철원, & 김민정. (2018). 액티브 시니어 여성들의 여가만족, 스트레스 관련 성장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7(1), 369-378.
 16.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17. 윤선희, 신창섭, 홍종숙, & 정영미. (2022). 도시 숲 산림 치유프로그램 교육 및 활동이 정서적 쉼에 미치는 효과: 치유회복환경지각, 주의회복, 여가활동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6), 386-399.
 18. 윤혜진, 최승묵, 정란수, & 박경열. (2022). 해양치유로서 수중레저 활동의 여가제약과 만족도 및 추천의사에 관한 연구: 2021 년 해양관광 이용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10), 5-21. doi:10.31336/JTLR.2022.10.34.10.5
 19. 이종열, & 이형룡. (2018). 자연 친화적 여가활동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의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42(10), 135-155. doi:10.17086/JTS.2018.42.10.135.155
 20. 이충기. (2019). *관광조사 통계분석*. 서울: 대왕사.
 21. 이해미, 이충기, 이채은, & 이진경. (2012). 카지노 딜러의 여가유형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세분시장별 직무 스트레스 수준 차이 규명. *호텔경영학연구*, 21(2), 207-221.
 22. 하경희. (2018).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웰니스여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7(1), 17-33. doi:10.24992/KJHT.2018.01.27.01.17
 23. 한주형, 이원석, & 문준호. (2020). 체류형 농촌관광 참여자의 일상회복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관광레저연구*, 32(1), 5-25. doi:10.31336/JTLR.2020.1.32.1.5
 24. 홍민정. (2021). 치유관광 체험에 대한 여가심리학적 접근: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5(6), 91-114. doi:10.17086/JTS.2021.45.6.91.114
 25. Alola, U. V., Olugbade, O. A., Avcı, T., & Ozturen, A. (2019). Customer incivility and employees' outcomes in the hotel: Testing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exhaustion.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29, 9-17. doi:10.1016/j.tmp.2018.10.004
 26. Avey, J. B., Avolio, B. J., & Luthans, F. (2011). Experimentally analyzing the impact of leader positivity on follower positivity and performance. *The Leadership Quarterly*, 22(2), 282-294. doi:10.1016/j.leaqua.2011.02.004
 27. Avey, J. B., Luthans, F., Smith, R. M., & Palmer, N. F. (2010).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employee well-being over tim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5(1), 17-28. doi:10.1037/a0016998
 28. Dalkey, N. C., & Rourke, D. L. (1973). The delphi procedure and rating quality of life factors. In EPA (Ed.), *The quality of life concept* (II-209-II-221). Washington, DC: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9. Elbaz, A. M., Salem, I., Elsetouhi, A., & Abdelhamied, H. H. (2020). The moderating role of leisure participation

- in work-leisure conflict for the reduction of burnout in hotels and travel ag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2(3), 375-389. doi:10.1002/jtr.2342
30. Ferradás, M. D. M., Freire, C., García-Bértoa, A., Núñez, J. C., & Rodríguez, S. (2019). Teacher profiles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Sustainability*, 11(18), 5096. doi:10.3390/su11185096
 31.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doi:10.2307/3151312
 32. Janke, M. C., Nimrod, G., & Kleiber, D. A. (2008). Leisure ac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of widowed and married women in later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2), 250-266. doi:10.1080/00222216.2008.11950140
 33. Karimi, M., & Brazier, J. (2016). Heal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life: what is the difference? *Pharmacoeconomics*, 34(7), 645-649. doi:10.1007/s40273-016-0389-9
 34. Kim, J., & Kim, J. H. (2014). A facilitator of leisure activities for stress-related growth experience among middle-aged Korean women with depressio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11-12), 1245-1266. doi:10.1080/07399332.2014.946508
 35. Kuykendall, L., Tay, L., & Ng, V. (2015). Leisure engag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1(2), 364-403. doi:10.1037/a0038508
 36. Li, J., Hsu, C. C., & Lin, C. T. (2019). Leisure particip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adults: An empirical study of Tai Chi Chua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8), 3387. doi:10.3390/ijerph16183387
 37. Lin, Y. S., Huang, W. S., Yang, C. T., & Chiang, M. J. (2014). Work-leisure conflict and its associations with well-being: The roles of social support, leisure participation and job burnout. *Tourism Management*, 45, 244-252. doi:10.1016/j.tourman.2014.04.004
 38. Luo, Y., Lanlung, C., Kim, E., Tang, L. R., & Song, S. M. (2018). Towards quality of life: The effects of the wellness tourism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5(4), 410-424. doi:10.1080/10548408.2017.1358236
 39. Luthans, F. (2002).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16(1), 57-72. doi:10.5465/ame.2002.6640181
 40. Luthans, F., Avolio, B. J., Walumbwa, F. O., & Li, W. (2005).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Chinese workers: Exploring the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1, 249-271. doi:10.1111/j.1740-8784.2005.00011.x
 41.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niversity Press.
 42. Newman, D. B., Tay, L., & Diener, E. (2014). Leisure and subjective well-being: A model of psychological mechanisms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 555-578. doi:10.1007/s10902-013-9435-x
 43. Okun, O. (2022). The positive face of human capital, psychological capital, and well-being. In *Research anthology on changing dynamics of diversity and safety in the workforce* (pp. 203-222). IGI Global. doi:10.4018/978-1-6684-2405-6.ch013
 44. Santisi, G., Lodi, E., Magnano, P., Zarbo, R., & Zammitti, A. (2020).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courage. *Sustainability*, 12(13), 5238. doi:10.3390/su12135238
 45. Shores, K., & Scott, D. (2007).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time perspective and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1), 28-59. doi:10.1080/00222216.2007.11950097
 46. Snir, R., & Harpaz, I. (2002). Work-leisure relations: Leisure orientat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2), 178-203. doi:10.1080/00222216.2002.11949968
 47. Soares Marques, N., Lopes, M. P., & Gonçalves, S. P. (202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 predictor of satisfaction with the fly-in fly-out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2, 669524. doi:10.3389/fpsyg.2021.669524
 48. Tay, L., & Diener, E. (2011). Needs and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54-365. doi:10.1037/a0023779
 49. Tsaour, S. H., Hsu, F. S., & Lin, H. (2019). Workplace fun and work engagement in tourism and hospitality: The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81, 131-140. doi:10.1016/j.ijhm.2019.04.004

jhm.2019.03.016

50. Tu, H. M. (2020). Does active leisure participation promote psychological capital through peer support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Plos One*, 15(6), e0234143. doi:10.1371/journal.pone.0234143
51. Tyagi, A., Tandon, U., & Mittal, A. (2023). Influence of memorable travel experience on psychological capital, mediated by mindfulness and moderated by restorat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in press)*. doi:10.1080/13683500.2023.2214724
52. Walker, G. J., Halpenny, E. A., & Deng, J. (2011). Leisur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The case of Chinese-Canadian immigra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3(2), 226-245. doi:10.1080/00222216.2011.11950234
53. Xu, J., & Choi, M. C. (2023). Can emotional intelligence increase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Behavioral Sciences*, 13(7), 614. doi:10.3390/bs13070614

Received 20 August 2023; Revised 11 September 2023; Accepted 20 September 2023



Dr. Kyung-Hee Kim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field is rural tourism.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khkim08@korea.kr
phone: 82-63-238-2630



Dr. Yae-Na Park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area includes cultural worldview, sustainable tourism, rural tourism, tourist experience, tourist behavior, Hallyu (Korean wave), ESG, and valuation of heritage tourism.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yeabanana@naver.com
phone: 82-62-238-2643